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인오*

Established business start - up support Impact on The youth of business performance

In-Oh Jeon *

요 약 본 연구는 지원정책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창업자의 교육수준과 창업기업의 성과와 창업지원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성과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이 성공창업패키지에 참가하는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비창업자들에 의해 지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할 것으로 보고 지원정책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창업자들의 특성과 창업지원 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창업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기술창업이 가능한 공대생을 중심으로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자료 수집의 방법은 창업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였으며, 157부를 각각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주제어 : 지원정책, 청년창업, 성과

Abstract The study is analyzed that policy support impact on youth entrepreneurship and to purpose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support, would like to empirical study on support performance by start-up support program through education level of the founder, performance of the establishment enterprises and an empirical study of start-up support.

This study reported that start-up support should be different from impact of performance of support by young founder to participate in the success of entrepreneurship incubator package or preliminary young founders and is focused on study of policy support.

Examines the literature of associated young founder's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at domestic and foreign, and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urvey research as the basis of the model was set. This study surveyed to university student which were trained nationwide entrepreneurship program in order to validate the research model. The survey targeted engineering students who is practical technology foundation possible during from June 1, 2012 to June. 15, 2012, the way of data collection was directly surveyed to engineer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ntrepreneurship program. and an empirical analysis were collected each 157 call.

Key Words : Support policies, youth Established, and performance

1. 서 론

IT산업의 발달과 글로벌 경제위기는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실업률의 상승폭은 청년실업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심각한

위기와 사회적 문제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 숫자는 축소되지 않고, 증가추세를 나타내므로 실직자, 직장인,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창업

*호서대학교 정보경영학과 교수(저자)

논문접수: 2012년 11월 29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2월 20일

열기를 높이고 실질적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에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으로 실현은 해소되지 않고, 정책 또한 매년 답습된 지원형태를 유지하여 본질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의 경우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자금지원과 창업교육, 대학의 방향성 잃은 창업수업 등으로 일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창업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 창업자금, 교육 및 마케팅 등을 통한 창업의 활성화와 성공창업을 가능토록 청년 창업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되는 창업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기로 하였다.

창업을 “새로운 독립기업의 설립”이라고 주장하고, 김미애·오인수(2003)는 사업 아이디어로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결합하여 제품 생산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9].

결국 창업은 고용창출(Birch, 1987; Lyons, 1995), 기술발전과 혁신(Acs, Audretsch, & Feldman, 1994; Malecki, 1997), 수출증대(Berman, 1994; Samiee & Walters, 1990), 실업률 해소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최종태, 1997; 황일청, 1992). 그리고 이러한 창업의 성공은 창업자의 나이와 성격, 경험, 교육 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39].

이러한 창업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창업자에게 우리나라 정부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주로 창업교육, 자금지원, 인력지원 및 마케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원정책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있다.

창업자의 교육수준과 창업기업의 성과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적인 창업지원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성과를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35].

본 연구는 창업지원이 성공창업패키지에 참가하는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비창업자들에 의해 지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할 것으로 보고 지원정책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창업자들의 특성과 창업지원 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의 창업패키지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을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의 정의

슈페터(1984)는 창업을 “점진적인 부를 창조하는 과정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드러커(1985)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혁신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창업이란 수반되는 재정적·심리적,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가치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여 금전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만족 그리고 독립감을 누리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27].

또 법률적 의미에서 창업은 2001년 3월에 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외 창업에 대한 국내 문헌들을 고찰해보자면, 먼저 창업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라 하였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와 사업아이템, 자본이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창업의 기본적인 3요소라 한다[11].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책임 하에 돈과 사람을 동원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곧 창업이다[2].

창업이란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라 했으며[12], 창업이란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사업기회를 발견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새롭게 사업체를 만드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10]. 또한, 창업이란 사업(일)을 창조하는 것으로 경영목적과 계획 하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 또는 시스템인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의 주체로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시스템(system)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였다[16].

창업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기업가는 창업과정

을 이용하여 자원의 새로운 결합·상업방법으로 현상유지를 탈피하는 혁신가로서 기술하고 있다. 그는 창업을 새로운 작업방법으로 기존의 낡은 방법을 파괴하는 창조적 파괴로 정의하며 통상적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 활동과 창업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창업을 규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은 혁신이며, 그 혁신은 새로운 일을 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자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결합 또는 재분배함으로써 부(富)의 창출 및 증식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새로운 모험적 사업을 시작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29].

창업을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의 창조개념으로 생각하되 실제로는 창업 단계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갖게 되는 단계까지를 창업의 전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33].

창업이란 자원, 노동, 재료 그리고 자산을 결합시켜 이전보다 가치 있는 조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 새로운 질서를 수반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이는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개념이라 할 수 있다[37].

창업은 새로운 부(富)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혁신적인 행위로서 정의하였다[31].

창업이란 부가적인 부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이 부(富)는 자산, 시간, 직업에 대한 헌신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정의하였다[32].

창업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정의상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조사를 한 결과 기업가의 특질, 혁신, 가치창조, 이익, 성장, 독특함, 소유경영자 등의 8개 차원이 사용됨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창업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연구마다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향은 각 연구가 창업과 관련된 현상 중에서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3].

창업이란 위험과 불확실성 상황 하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이라 정의하고 있다. 창업을 정의할 때 창의성, 혁신, 자원의 수집, 경제적 조직체의 설립, 이윤추구의 기회 등을 핵심적 요소로 꼽았다[21].

Timmons 및 그의 동료들(1985)은 창업을 실질적으로

무에서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그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창업아이디어(아이템), 창업자본이라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창업에는 첫째,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며 사업을 개시하려는 기업가의 자질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가 필요하고, 둘째, 창업 후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용역을 제공할 것인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판매활동을 할 것인지에 관한 사업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셋째, 생산 및 용역제공에 필요한 인력, 사업장, 설비, 원자재 등의 자원과 기술개발 및 영업조직의 구축 등의 유형 자산·무형자산을 총괄하는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창업 자체가 실현되지 않는 기업의 미래를 향해 준비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준비는 부족하므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외부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2.2 창업자

우리나라는 1986년 제정(법률 제 3831호 1986년 5월 12일 제정 공포)되어 2001년 3월에 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창업자는 기업이 정신이 충만해야 하고, 신상품, 신서비스를 창출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내는 중추적인 수행자라 하였다[30]. 창업자를 기업자원의 신 결합으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여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개척자이고 모험가이며 혁신가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4].

창업자를 기회가 있을 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그 기회를 사업화하는 사람들이라 하였다[5].

창업자란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자원을 총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9]. 그러나 Schumpeter(1934)의 주장처럼 새로운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벤처를 조직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창업정신으로 조직을 경

영하지 않으면 창업자라고 할 수 없다[30].

창업자를 조직 내에서의 창조행위 역시 창업으로 규정하고 Schumpeter가 주장한 최고 경영자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창조적 파괴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를 창업자로 보는데 동의하였다[38].

창업자는 창업 아이디어의 확보,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 등을 주도하고 책임자는 창업자가 주도자이며, 창업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설립에 필요한 유형, 무형의 자원(resource)을 동원하고, 이들을 적절히 결합하여(organize)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설립된 기업이 의도한 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manage)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2].

건전한 사회적 환경, 좋은 재정적 지원 상태 그리고 창업자들의 질 좋은 경험 등을 기초로 하여 동기 부여된 창업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 창업가들이 속한 국가가 창업정신을 양양시키고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국가적 창업문화가 없이 경쟁력 있는 창업가들이 배출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대성(2003)은 Lee와 Peterson(2000)의 연구가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훌륭한 창업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창업자가 양성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배경에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5].

이와 같이 성공적인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창업자이며, 창업자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외부 환경요소들의 관리·통제에 따라 창업의 성과가 다르게 된다[23]. 또한 창업성공은 위험감수 능력, 시장 파악 능력, 서비스와 제품특성, 시장특성, 재무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므로(MacMillan 등, 1987), 창업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창업가적인 특성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24].

이러한 창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창업자의 자질이 요구되며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대개 전문 교육과 훈련, 실무경험, 각종 연구회와 세미나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갖추어 질 수 있다[28].

2.3 창업지원정책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2012년도 중소기업청 지원 규모는 2조 1,600억 원으로 전년도 1조 9,720억보다 1,88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대체로 사업기술지원 7,473억 원

과 산업진흥고도화지원 6,538억 원으로 총 1조4,01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규모의 약 65%에 해당한다[19].

2.3.1 인력지원

우리나라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창업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에 의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설되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업교육은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교육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2]. 그리고 반성식(2005)은 창업교육은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된 1개월 이내의 예비창업자를 위한 단기 창업교육에 집중하여 왔기 때문으로 본다. 그리고 대학에서 보다 체계적인 창업교육은 1992년부터 28개 대학은 기업 및 창업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고, 강좌를 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창업강좌의 개설이 급격히 늘어났다[12].

미국의 경우 창업교육은 경영학뿐만 아니라 공학계열 학과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39]. 그리고 미국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992년 470개 대학에서 창업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7]. 우리나라는 한국과학기술원, 숭실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호서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창업관련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지만, 집중적인 창업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2004년 중소기업청은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코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창업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후 건설링대학원과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한 청년사관학교 등을 개설하여 창업교육을 돕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00년부터는 청소년 창업교육을 위해 2001년 12월 ‘비즈쿨 길라잡이’를 개발, 2002년부터 BizCool을 운영하는 등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창업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창업진흥원을 비롯한 지

방자치단체 등 창업에 관한 단기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20]. 그리고 2012년도 중소기업청 교육사업관련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중소기업청 교육예산규모(2012)

지원사업명	예산 (억 원)	지원 대상
1. 소기업CEO교육	25	1,500명(1일)
2. 중소기업특성화교육 육성 사업	168	80개교
3.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지원	96	전문대와 공과 3개교
4. 외국 전문 인력 도입지원	34	190명
5. 창업교육 저변확대	216	
6. 청년사관학교, 창업선도대 등	987	
7. 여성, 장애인 등 맞춤형 창업지원	95	
8. 1인 창조기업	200	

2.3.2 자금지원

은행권은 공동출연 5천억 원으로 2012. 5. 30일 청년창업재단을 설립하고,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의 20대와 30대 창업기업주를 대상으로 투자지원과 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으로 창업 1년 이내의 자로서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마케팅비 등을 대상으로 5천만 원을 한도로 창업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창업 1년 이내의 예비 창업팀에는 9천만 원을 한도로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의 외부요인으로서 환경이외에 지원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인찬(1998)은 벤처지원시스템으로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가 있으며, 벤처캐피탈의 투자유무가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벤처캐피탈의 지원은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미국과 상이하게 휴먼 네트워크 위주로 진행되고, 심사역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정수(1998)는 기술지원과 마케팅지원 등 외부지원이 시장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장지향성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

2012년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자금 분야 주요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자금지원내용(2012)

지원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예산 (억 원)
1. 창업기업 자금지원	창업활성화와 고용 창출	12,300
2. 개발기술사업화지원	개발기술제품화, 사업화	2,580
3. 소상공인지원자금	창업과 경영안정	4,250
4.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창업기업과 소기업	1,135
계		

2.3.3 마케팅과 홍보지원

창업초기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가능토록 하는 마케팅의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 마케팅 전문 인력의 부족과 창업자의 비전문화 창업은 창업제품을 사업화하는데 실패율을 높이므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창업기반 구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실현은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창업기업의 특수성을 살리는 지원보다 전체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으로 일관되거나 특정분야의 지원으로 창업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19].

대체로 2012년도 중소기업청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중소기업청 지원예산

지원사업명	지원예산 (백만 원)	지원기업 수
1. 중소기업 공동A/S센터운영	2,500	150개 기업
2. 중소기업공동상표지원	1,790	
3. 중소기업홍보지원	1,226	
4. 중소기업마케팅기반조성	694	300개 기업
5. 수출역량강화사업		

2.4 창업지원정책

창업성과는 초기의 Gartner(1985) 연구모형에서 창업과정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창업성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Tsai(1991)는 성공창업에서 성과지표를 사용하였으며, 객관적인 재무제표와 주관적 지표로 직무성과 만족도, 만족도의 조직유효성 등을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지표를 사용하였다. 즉 재무적 지표로 ROI, ROA, ROS, ROE 등 재무성과를 비재무적 지표로 시장점유율, 성장률, 다각화 및 제품혁신 등의 사업성과, 그 외 주관적 지표로서 만족도, 근로생활의 질, 사회적 책임

등 조직의 효과성을 성과로 측정하였다[36].

벤처기업의 성공을 주관적 성공과 객관적 성공으로 측정하였다[35].

그 외 고상봉 외 선행연구(별표)에서는 통일된 객관적인 측정방법은 없으나 주관적인 성과지표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성과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성과결정요인

연구자	내부요인			외부요인		성과	적용	
	창업자	조직지원	창업과정	환경	지원시스템		기업내창업	기업외창업
Lumpkin, Dess(1996)	o	o		o		o	o	o
Shane, Venkataraman(2000)	o			o		o	o	o
Baum, Locke, Smith(2001)	o		o	o		o	o	o
김인호(2002)		o	o			o		
강상미(2002)	o	o	o	o		o		o
이동주(2002)	o	o	o	o		o		o
채명수 외(2002)	o	o	o	o		o		o
용세중(2003)	o	o	o	o	o	o	o	o
윤석철(2003)		o	o			o		
장수덕 외(2003)	o	o	o	o		o		o
고상봉 외	o	o	o	o	o	o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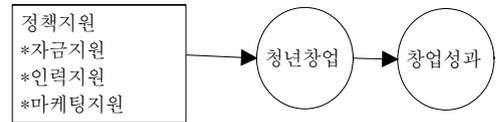
자료 : 고봉상, 용세중, 이상현의 벤처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성공창업 측정의 선행연구 제6권 2호. p13

3. 연구의 설계

3.1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의 기본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예비창업자의 심리적인 특성이 창업교육(성공창업패키지)을 받음으로써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 그 변화에 개인의 특징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를 일으키는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결과에 따라 청년창업자에게 정책지원이 성공창업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정책자금지원은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조사 방법

3.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조사목적과 연구범위를 고려하여 전국 창업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실질적인 기술창업이 가능한 공대생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자료 수집의 방법은 창업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였으며, 200부를 배포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여, 157부를 각각 수집하였다.

청소년 창업교육,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 및 창업지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정연우, 2008)과 외식업 창업자의 특성과 서비스 지향적 노력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신금순, 2008)와 청소년 창업교육에서 성격유형이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하선탁, 2008)를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지 상의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하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3.3 분석 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에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세부항목들을 영역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3.4 설문지 구성

〈표 5〉 표본의 일반적 특성

영역 및 내용		문항 번호	최종 문항	최종 문항수
청년 창업자	청년창업	I	1-6	6
지원정책	전체	II	1-15	5
	창업자금정책지원	II-1	1-5	5
	창업인력정책지원	II-2	1-5	5
	창업마케팅 정책지원	II-3	1-5	5
창업성과	창업성과	III	1-5	5

4. 분석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구성은 창업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총 응답자 157명 중 남자가 134명(85.45%)이고, 여자가 23명(14.6%)으로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은 20대가 153명(97.5%)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창업의 유무는 예가 68명(43.3)이고, 아니오가 89명(56.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성별	빈도	퍼센트
1. 남자	134	85.4
2. 여자	23	14.6
합계	157	100.0
창업교육 유무	빈도	퍼센트
1. 예	68	43.3
2. 아니오	89	56.7
합계	157	100.0
연령	빈도	퍼센트
1. 20대	153	97.5
3. 30대	4	2.5
합계	157	100.0

4.2 변수의 신뢰성 검증 및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당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도 분석을 먼저 수행하였다.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정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하여 높였으며, 축소된 요인의 신뢰성을 신뢰도 분석으로 재고시켰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된 측정항목을 변수에 따라 합산 평균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4.2.1 타당성 분석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타당성의 종류에는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예측타당성(predictive validity),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념타당성을 고려하고 있다.

개념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속성 다측정 방법(multi-trait multi-method matrix)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에 의한 개념타당성 평가는 어떤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측정항목들을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후, 각 항목들에 의한 측정치들의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그 결과로 나온 요인들이 원래 의도한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요인 내에 묶여진 항목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각 요인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요인내의 항목들은 집중타당성에 해당되며,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여러 기법 중 정보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수많은 변수들을 가능한 적은 수의 요인으로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요인의 회전은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며 회전하는 방법은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요인 추출의 기준은 적어도 요인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에 근거하여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요인적재량의 유의성 기준은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이 0.3 이상이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0.4 이상이면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7〉 기술통계량

	N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청년창업자	157	1.83	5.00	3.3163	.71267
창업자금정책 지원	157	1.80	5.00	3.3452	.67619
창업인력정책 지원	157	1.40	5.00	3.2306	.80612
창업마케팅정책 지원	157	2.00	5.00	3.4739	.64700
정책지원	157	2.13	5.00	3.3499	.63253
창업성과	157	1.00	5.00	2.9070	.86722

4.3 신뢰도 분석

신뢰성(reliability)이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하며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정확성(accurac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등으로 표현되는 개념이다. 신뢰도측정방법에는 재검사법, 복수 양식법, 반분법, 내적일관성 방법이 있는데, 크론바하 알파계수에 의한 신뢰성 측정 시 측정계수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0.5~0.6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도 0.8이상이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에서 0.808, 창업자금정책지원에서 0.799, 창업인력정책지원에서 0.874, 창업마케팅지원에서 0.787, 창업성과에서 0.824로 나타나, 모두 신뢰도가 0.7이상으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크론바하 알파계수 0.9 수준으로 신뢰성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 신뢰도가 0.9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은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표 8〉 신뢰도분석

영역 및 내용		문항 번호	최종 문항	최종 문항수	신뢰도
청년창업자	청년창업	I	1-6	6	.808
지원정책	전체	II	1-15	5	.918
	창업자금정책지원	II-1	1-5	5	.799
	창업인력정책지원	II-2	1-5	5	.874
	창업마케팅정책지원	II-3	1-5	5	.787
창업성과	창업성과	III	1-5	5	.824

4.4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목적인 각 요인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들의 예측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연구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으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요인들 간의 관계가 양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연구가설에 제시된 요인들 간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을 나타내어 기준타당성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성과와 청년창업자의 상관은 .589, 창업자금정책지원과의 상관은 .630, 창업인력정책지원과의 상관은 .483, 창업마케팅정책지원과의 상관은 .404, 정책지원 전체와의 상관은 .567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 0.05)

〈표 9〉 상관관계 분석

		청년창업자	창업자금정책지원	창업인력정책지원	창업마케팅정책지원	정책지원	창업성과
청년창업자	Pearson 상관계수	1	.682 (**)	.551 (**)	.583 (**)	.676 (**)	.589 (**)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57	157	157	157	157	157
창업자금정책지원	Pearson 상관계수	.682 (**)	1	.714 (**)	.639 (**)	.878 (**)	.630 (**)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57	157	157	157	157	157

창업 인력 정책 지원	Pearson 상관계수	.551 (**)	.714 (**)	1	.707 (**)	.920 (**)	.483 (**)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57	157	157	157	157	157
창업 마케 팅 정책 지원	Pearson 상관계수	.583 (**)	.639 (**)	.707 (**)	1	.869 (**)	.404 (**)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57	157	157	157	157	157
정책 지원	Pearson 상관계수	.676 (**)	.878 (**)	.920 (**)	.869 (**)	1	.567 (**)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57	157	157	157	157	157
창업 성과	Pearson 상관계수	.589 (**)	.630 (**)	.483 (**)	.404 (**)	.567 (**)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N	157	157	157	157	157	157

4.5 가설검증(차이분석)

본 연구의 청년창업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은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창업자금 정책 지원, 창업인력 정책지원, 정책지원 전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 < 0.05)

4.6 가설검증(회귀분석)

회귀분석 결과 청년창업자, 창업자금 정책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 < 0.05)

청년창업자의 영향은 .305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 베타값)

〈표 10〉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청년창업자	1. 20대	153	3.3235	.72048	.780
	3. 30대	4	3.0417	.08333	.437
창업자금정책지원	1. 20대	153	3.3634	.67178	2.106 .037
	3. 30대	4	2.6500	.50000	
창업인력정책지원	1. 20대	153	3.2614	.79016	3.045 .003
	3. 30대	4	2.0500	.50000	
창업마케팅정책지원	1. 20대	153	3.4863	.65082	1.490 .138
	3. 30대	4	3.0000	.00000	

정책 지원	1. 20대	153	3.3704	.62599	2.553 .012
	3. 30대	4	2.5667	.33333	
창업 성과	1. 20대	153	2.9268	.86959	1.781 .077
	3. 30대	4	2.1500	.10000	

청년창업 정책지원의 영향은 .413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 베타값)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463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if < 12.0)

〈표 11〉 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공차 한계	VIF
(상수)	.174	.504		.345	.731		
청년창업자	.371	.111	.305	3.349	.001	.435	2.297
창업자금정책 지원	.529	.130	.413	4.063	.000	.349	2.865
창업인력정책 지원	.093	.107	.087	.874	.384	.365	2.741
창업마케팅 정책지원	-.159	.122	-.119	-1.299	.196	.431	2.318
성별	.259	.152	.106	1.711	.089	.936	1.068
창업교육 유무	-.007	.113	-.004	-.062	.951	.855	1.170
연령	-.229	.342	-.042	-.670	.504	.928	1.078
F 유의확률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18.367 .000				.681 .463 .438			

회귀분석 결과 첫째, 청년창업자는 유의확률 0.0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베타계수는 0.371로 창업성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금정책지원에서 유의확률은 0.00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베타계수는 0.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창업에 있어서 창업자금 정책은 창업성과에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창업인력정책지원은 유의확률 0.384로 낮게 나타났다. 베타계수는 0.093으로 창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마케팅 정책지원은 0.19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베타계수-0.159로 창업의 성과에는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별 유의확률 0.089로 나타났으며 베타계수는 0.259로, 창업교육 유무의 유의확

를 0.9519로 나타났으며 베타계수는 - 0.007이며, 연령은 유의확률 0.504로 나타났으며 베타계수는 -0.229로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5.1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교육을 받기전과 수료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통제의 위치, 위험감수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심리적인 특성인 창의성을 추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 심리적인 특성의 변화에 창업교육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을 통해서 예비창업자의 통제의 위치, 위험감수 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의 심리적 특성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가 대부분이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둘째, 창업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통제의 위치, 위험감수 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 역시 그 변화의 정도가 대부분이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다만, 통제의 위치와, 창의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창업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통제의 위치, 위험감수 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 역시 그 변화의 정도가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넷째, 예비창업자가 창업교육을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통제의 위치, 위험감수 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에 대한 심리적 특성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 역시 그 변화의 정도가 대부분이 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다만, 창의성은 창업교육을 받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수치가 높게 나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온 이유는 교육기간이 짧은 단기교육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교육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변화의 폭이 너무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을 촉진 시키고,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교육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된 결과가 나왔으며, 창업교육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필요함을 연령이 낮은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가 큰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창업교육을 받게 되면, 그만큼 통제의 위치부분과, 창의성 부분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보였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였다. 또, 본 연구 표본과 같은 2주 정도의 너무 짧은 창업교육 보다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장기 창업 교육이 더 좋으며, 짧은 창업교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몇 회에 걸친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은 성공창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창업교육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성급한 창업이 아니라, 취업을 차근차근 준비하듯, 창업도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야 성공창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창업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비 실험적이며 횡단적인 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유추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설문 조사 시 전국적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야함이 원칙이나 실질적인 조사의 규모면이나 예산면에서 불가능한 것이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다음으로 창업교육에서 비정규 창업교육이라고 하면, 장기와 단기 창업교육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기 창업교육만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에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연구의 방향으로는 창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업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창업교육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기존의 비정

규 교육과정의 장기교육에 대한 성과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며, 향후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의 성과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수도권과 비수도권(광역시, 시, 군)으로 나눠 지역 환경에 맞는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를 한 후,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하기위한 창업교육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은퇴 후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할 것이다. 기존의 실무 중심이었던 창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를 닦은 후에 실무 창업으로 나아가 창업의 실패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이 하루 빨리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지원체계 등을 만들어,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은 활발한 창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김정연 (2008), 전문계 고등학교 BizCool(창업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pp. 7~9

[2] 이시화(2008), 한국 대학원의 창업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 국책 창업대학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진주산업대 벤처창업대학원 석사 논문 pp. 5~21

[3] 정연우(2008), 청소년 창업교육,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 및 창업지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진주산업대 벤처창업대학원 석사 논문 pp. 5~9

[4] 신금순(2008), 외식업 창업자의 특성과 서비스 지향적 노력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pp. 30~49

[5] 하선탕(2008), 청소년 창업교육에서 성격유형이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문계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pp. 3~9

[6] 구연(2007), 기업가정신과 벤처기업 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박사 논문 pp. 26~33

[7] 이해갑(2007),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적 연구,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석사 논문 pp. 4

0~44

[8] 김완재(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밭대 창업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pp. 20~24

[9] 김기남(2004), 소상공인의 개인 및 창업과정 특성과 창업초기 성과와의 관계, 영남대 대학원 pp.28~34

[10] 민경호(2004), 벤처기업과 기업가 정신, 무역경영사

[11] 박대섭(2004), 한국 외식 창업자의 특성과 자질이 창업성공 및 권유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2] 서근하·윤성욱(2002), 소상공인 창업성공 결정 요인과 성과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 제15권, p. 19~40

[13] 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4]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제22권, 1호, 한국 중소기업학회, p. 129

[15] 김원형(1999), 창업자 특성 및 창업 환경과 창업 성과와의 관계, p. 119

[16] 김유식(1997),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창업환경, 창업기업의 특성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7] 박춘엽(1997), 창업 및 창업학의 국내외 동향, 대한산업공학회, p. 52

[18] 고중선(1991).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pp. 28~41

[19]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2012), (<http://www.sbdc.or.kr>)

[20] 기술창업패키지 TEPS (2012). (<http://www.techstart.or.kr>)

[21] Aldrich, H. & Zimmer, C.(1986). "Entrepreneurship through social networks", In D.L.Sexton & R.W.Smilor(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 3-23. Cambridge, MA: Ballinger.

[22] Amit, R., Muller, E., & Cockburn, I. (1995) "Opportunity costs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2): 95-106.

[23] Ardichvili, A., Cardozo, R., & Ray, S. (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05-123.

[24] Barney, J. B.(2002) "Gaining and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2nded.)", Upper Saddle

- River, NJ: Prentice Hall.
- [25] Baron, R. A. (1998) "Cognitive mechanisms in entrepreneurship: Why and when entrepreneurs think differently than other pers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75-294.
- [26] Bird. B. J.(1999) "Demographic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Experience and background," In Katz. J. A.and Brockhaus(Eds.). R. H.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Greenwich, CT: JAI Press, 1993, pp.11-48
- [27] Brockhaus, R. H. (1980),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hich distinguish the successful from the unsuccessful entrepreneur: A longitudinal study",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pp.368-372.
- [28] Case, John, "The Origins of Entrepreneurship," *Inc.* pp.54, June 1989.
- [29] Collins. O. F. and Moore. G. (1964) "The Enterprising Man East Land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30] Cooper, A. C. & Dunkelberg, W. C.(1987) "Entrepreneurial research Old questions, new answers,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3(2), 49-64.
- [31] Cooper, A. C. & Dunkelberg, W. C. (1986) "Entrepreneurship and paths to business ownership",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7(1): 53-68.
- [32] Evans, D., & Jovanovic, B.(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808-827.
- [33] Gartner, W. B.(1989). Whois an Entrepreneurs the Wrong Question.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4), 11-22.
- [34] Kichoff, B & B. Phillips(1988), "The Effect of Firm Formation and Growth on Job Cre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3.
- [35] Krueger, N.(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5-21
- [36] Lee, S. M., Chang, D. S., & Lim, S. B.(2005).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and Korea.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 27-43.
- [37] Mc Mullan, W. E. and K. Vesper(1987), "Now Venture and Small Business Innovation for Economic Growth", *R & D Management* vol. 16. Becherer, R. C. and Maurer, J. G., "The proactive personality disposition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among small company presiden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7(1), pp.9-37.
- [39] O'Higgins. Nail. (2001),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A Global Perspective*. Geneva : ILO, Peter, W., 2004, "Entrepreneurs' Network and Success of Start-up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pp.391-412

전 인 오



- 2011년 8월~현재: 호서대학교 마이스산업기반연구소 소장
- 2005년 5월~현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2006년 3월~2007년 2월: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전시/컨벤션학 과장

- 관심분야: MICE산업(전시/컨벤션산업), 중소기업창업, 소프트웨어공학
- E-Mail: eric@hoseo.edu